

정의와 공의

-KJV와 RVR의 “tsedeq(췌데크)” 번역에 대한 상황화적 관점에서의 분석-¹⁾

스티븐 보스*

박철우 번역**

어떤 번역이든, 결코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기독교회는 성경 본문의 번역이 어떤 특별한 경향성이나 이데올로기나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환상 속에 지내왔다. 그러나 이제 모든 번역은 해석이라는 사실이 적어도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이탈리아 담론인 “번역자는 반역자”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번역은 반역이라고까지 말한다.

유진 나이다(Eugene Nida)는 모든 올바른 의미론적 분석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의미론적 동등성에 관한 세 가지 기본적 원칙들을 주목하게 하였다: (1) 그 어떤 단어(의미론적 단위)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발화(utterance)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2) 한 언어 안에서 완전한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서로 상응하는 단어들 사이의 완전한 동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며, 모든 의사소통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성경 번역은 고대 본문의 거의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번역자 또는 번역 팀은 고대 본문의 의미를 현대어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 번역 과정은 진공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특별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역사적 과정의 하나이다. 이것은 번역 과정에 많은 동인(動因)들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인들 가운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 종족, 계급, 성별, 생활사, 신학적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메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산디에고 베델 신학 대학원 교수

** 나사렛 신학대학교, 구약학

1) 나는 이 연구 과정과 통계 자료 수집에 있어 나를 도와 준 제니스 레이몬드(Janice Raymond)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좋은 조언을 해준 나의 동료 톰 코렐(Tom Correll) 박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주장, 정치적 동맹, 문학적 특이성, 최종적으로 언급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동인인 시장성의 문제 등을 제시한다. 이 구체적 요인들은 번역자 또는 번역 팀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도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행해진 성경 본문의 모든 번역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각각 고유한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이것은 곧 성경번역에 있어서 “순진무구한(immaculate)” 번역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스페인어권의 서로 다른 두 성경 번역 팀에 참여하면서²⁾,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번역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이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경험적 차원에서 확신하게 되었다. 기껏해야 나는 그 번역의 머리말에 명백하게 그 번역의 가정들과 선이해와 신학적 경향과 시장의 압력이 설명되어지는 경우, 정직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형식 동등성”, “역동적/기능 동등성” 또는 이러한 것들의 변화된 형태이든, 그 번역자가 어떤 번역 철학을 가지고 있든, 그는 그 번역의 최종 산물뿐만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그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스탠리 포터(Stanley Porter)가 진술한 바 있듯이, “성경 번역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일단 번역에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번역 이론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 모든 번역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 영역 중의 하나는 건전한 문화적 동등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용언어”(receptor language)가 “원천언어”(source language) 안에 의도된 의미를 가능한 한 충실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른스트 벤트란트(Ernst Wendland)의 이론은 매우 유익하며 많은 배움을 준다. 그는, 번역의 형식적, 기능적 수용성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작용하는 네 개의 변수들(충실성, 이해 가능성, 언어의 고유성, 근접성)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충실성은 “원천 언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저자의 의도된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과 관련된 문제이다.
2. 이해 가능성은 독자들이 “수용 언어” 안에 표현된 메시지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3. 언어의 고유성은 “수용 언어”에 표현된 메시지가 독자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리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2) 이 두 번역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Nueva Versión Internacional*(『국제 새번역』), 국제성서공회(International Bible Society)의 지원을 받고, 1999년 2월에 출판됨; *La Biblia en Lenguaje Sencillo*(『쉬운 말 성경』), 세계성서공회연합회(Sociedades Bíblicas Unidas)의 지원을 받았고, 2000년 말에 출판될 예정이다.

4. 근접성은 “원천 언어”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의 구조와 그 독특성을 보존하려는 바람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네 개의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어떤 번역도 메시지의 모든 기능적 면(형태, 의미, 영향, 내포적 의미[connotation], 자연스러움, 역사, 생활양식, 세계관)에 있어서 완전한 동등성을 달성할 수 없다. 번역자는 다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깊이 참여하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새로운 언어적, 문화적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

1. 문제

앞에서 번역 이론을 살펴보았고 “이데올로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번역하는 모든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필연적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제 나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원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 중의 한 면모는 두 개의 현대 언어(스페인어와 영어)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본문의 다양한 문맥 속에 나타나는 한 특별한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에 또 한 가지는 기독교회에 의해 수용된 신학을 위한 번역적 선택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들(영어권의 KJV와 스페인어권의 RVR)을 비교할 때 이미 명백해진다. 이 두 번역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본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차이점을 금방 인지하게 된다.³⁾

우리가 RVR을 읽으면 본문 속에서 *justicia*(justice, 정의)라는 말을 매우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는 좀더 주의 깊은 비교를 통해서 RVR이 *justicia*(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KJV는 *righteousness*(공의)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예(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는 이 명백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예레미야 33:16에서 KJV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In those days shall Judah be saved, and Jerusalem shall dwell safely: and this is the name by which she sha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NESS.”(『개역개정』: “그 날에 유

3) 이것은 이미 1978년 나의 동료 학자였던 아르헨티나의 시드니 루이(Sidney Rooy) 박사에 의해 인정되었던 사실이다.

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와 대조적으로 RVR은 이 말(THE LORD OUR RIGHTEOUSNESS)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Jehová, justicia nuestra*”(여호와, 우리의 정의). 두 번째로, 마태복음 5:6에서 KJV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Blessed are they who do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righteousness에 주목 - 역자 주) 이에 반하여, RVR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Buenaventurados los que tienen hambre y sed de justicia: porque ellos ser~n saciados.*”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Blessed are they who do hunger and thirst for justice, for they shall be satisfied.”(KJV에서 righteousness라고 번역된 것을 RVR에서는 justicia[justice]라고 번역한다 — 역자 주).

이 두 번역 성경을 넓게 확대하여 읽고 관찰한 통계 자료는 이와 같은 우리의 처음 관찰을 더욱 강화한다. KJV에 나타난 justice라고 하는 단어의 컴퓨터 검색은 KJV 성경 전체를 통해 단지 28번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justice라고 하는 단어의 28개의 용례 가운데 KJV 신약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영어 단어의 28개의 용례 모두가 다 구약성경에만 나타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KJV 신약성경을 평생 읽어도 KJV 신약성경만을 읽은 사람들은 그들의 독서에서 justice라고 하는 단어를 평생 한번도 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현실이 의미하는 바와 그 결과에 관해 나중에 더 언급하게 될 것이다.

RVR에 행해진 동일한 탐색은 justicia(justice)라는 단어가 총 327번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101번 나온다. 이것은 KJV에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RVR에서는 이것보다 13배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에서의 이와 같은 문맥상의 차이점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면모는 또다른 영어 번역과 스페인어 번역들의 비교 관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영어		스페인어	
KJV	28번	RVR	370번
JPS:	80번(오직 구약)	DHH	277번
TEV:	103번	NVI	426번
ASV:	116번		
NKJV:	130번		
NRSV:	131번		

NIV:	134번
NAB:	221번
NJB:	253번

스페인어 번역 성서인 『국제새번역』(*Nueva Versión Internacional, NVI*)은 라틴아메리카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가장 최근의 번역이다. 1999년 2월에 출판된 이 번역은 *justice*라고 하는 말의 사용과 관련하여 영어 번역과 스페인어 번역 사이에 존재하는 더 넓은 간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두 개의 표준 번역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루터성경 개정판』(1985)에는 “*gerechtigheit(justice)*”가 306번 나온다. 프랑스어 『새번역성경 2차 개정판』(*Nouvelle Version Second Révisée*)에는 “*justice*”가 380번 나오고, 소위 외경을 포함한 라틴 『불가타 성경』에는 “*iustitia*”가 400번 이상 나온다.

KJV와 RVR(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 사이의 번역 상의 차이에 관한 이 간단한 관찰은 많은 질문을 불러 일으킨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번역들만을 관찰하는 것으로 대답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통계 분석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위에 언급한 대로, 이 문제는 많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2. 논지 전개の方法

번역들 사이의 표현상의 차이는 오직 현대 영어와 스페인어라는 관점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다. 우선, 번역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직접적 영향을 행사한 의미 있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나는 한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단어가 바로 *tsedeq*이다. 이 단어 *tsedeq*와 함께 나오는 많은 다른 히브리어들이 있으며⁴⁾, 이 단어들이 분석될 수도 있다. 이 작업은 박사 학위를 위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성격상, 우리는 문제의 범위를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없다. *tsedeq*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KJV가 일관성 있게 이 단어를 “righteousness”(공의)로 번역하는 데 비하여, RVR은 그것을 “justice”(정의)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작업은 히브리어 *tsedeq*의 의미 또는 여러 의미들을 정의하는 데에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어 “righteousness”(공의)라는 단어의 역사와 의미를 검토하

4) KJV의 *mishpat(justice)*의 번역에 관해서는 프랭크 게이블라인(Frank Gaebelin)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Old Testament Foundations for Living More Simply”, Ron Sider, ed., *Living More Simply: Bibl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Model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0), 27-39.

는 것이다. 이 단어의 사용에 관한 역사적 변천이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KJV의 번역자들이 그 단어를 사용했던 때에 그것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 그 번역자들은 그 이전 번역들로부터 그 단어를 물려받았는가? 그 단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는가? 그 단어는 오늘날 어떤 내포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과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가 두 번역 사이의 문맥 안에서의 의미상의 차이와, 기독교회를 위한 이 차이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고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tsedeq*가 히브리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곳의 중요 본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어진 본문 속에서 이 단어에 대한 가장 바르고 정확한 문맥상의 해석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 본문들이 분석됨에 따라 KJV와 RVR 사이에 계속적 비교가 행해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각 번역에 내포되어 있는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려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지금까지 행해진 분석을 바탕으로 일련의 기초적 제안을 제공할 것이다. 이 제안들은 또한 이 단어들의 이해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고찰할 것이며, 어떻게 교회의 신학이 “righteousness”(공의) 또는 “justice”(정의)의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가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3. “*tsedeq*”의 의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tsedeq*에 관한 학문적 자료는 상당히 풍부하다. 이 히브리 단어는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이 단어의 가장 본래적이며 정확한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는 학자들의 특별한 경향성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선, 이 *tsedeq*가 여러 문맥 속에서 그리고 많은 서로 다른 문학적 장르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의 폭이 상당히 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어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며 번역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표준이 되는 사전들을 훑어보면 이 단어 *tsedeq*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해들을 만날 수 있다.⁵⁾

5) 여기에서 동계(同系) 어휘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동사 *tsadaq*, 여성명사 *tsedaqah*, 남성명사 *tsaddiq*, 형용사 *tsaddiq*와 같은 어휘들은 이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는다. *tsedeq*와 *tsedaqah* 사이에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 많은 불일치가 있다. 그러나 이 단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논문의 전체적 논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차이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a. **BDB**: 정직성, 공의; 1. 옳고 바르고 정상적인 것; 정직성, 옳음. 2. 공의. 3. 공의, 송사에서 정의. 4. 말에서의 정직성. 5. 윤리적 차원에서의 공의. 6. 인정받은 공의.
- b. **K-B**: 1. 옳고 정상적인 것. 2. 공의, (법의) 정직성. 3. 정의.
- c. **K-B-1996**: 1.a. 정확성, 옳은 것; b. 바른 것, 정직한 것. 2. 공평, 옳은 것. 3. 공동체적 충성, 공동체를 향한 충성스러운 행동. 4. 구원, 평안.
- d. **Schökel**: 정의, (법적) 권리; 정직, 무죄; 장점, 공로; 승리. a. 명사로써 정의.

이 모든 사전들에 의해서 제안된 해석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차이점들이 있다. 가장 현저한 차이는 가장 탁월한 성서학자 중의 한 사람인 루이스 알론소 쇠켈(Luis Alonso Schökel)에 의해서 스페인어로 출판된 사전이 “justice”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tsedeq*의 기본적 주요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나는 이 단어의 더 확대된 설명 속에서 그 사전이 명사로써의 *tsedeq*가 주로 “justice”를 의미한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우리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한정될 수 없다. 나이다는 그 사전적 단위의 좀더 정확한 의미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들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를 위해서 탁월한 신학적 어휘 사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한 단어가 사용된 의미론적 영역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더 진지한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tsedeq*에 관해 쓰여진 서로 다른 포괄적 신학적 논문들은 어근 *ts-d-q*로부터 파생된 모든 동계(同系) 어휘들을 다룬다. 그러나 나는 *tsedeq*와 *tsedaqah*사이에 의미상의 중요한 차이가 없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라이머(Reimer)는 “... *tsedeq*와 *tsedaqah*는 완전한 동의어”라고 정확하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주로 *tsedeq*에 집중하겠지만, *tsedaqah*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위의 검토는 *tsedeq*의 의미론적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어떤 영어 단어도 이 히브리어의 다양한 용례와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어형론(morphology)에 바탕을 두고 이 단어와 관련하여 일련의 일반적 의미를 제안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서로 다른 문맥들로부터 다양한 의미론적 뉘앙스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 무게와 계량과 관련된 “적법성(legitimate)” 또는 “올바름(just)”이라는 의미가 오경 본문에 나타난다. 이 의미는 또한 시편에서 규례와 희생제물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tsedeq*가 종종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옳기, 특별히 옳

이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의미이다.⁶⁾

이 단어로부터 나오는 또다른 의미는 합당한 명령과 의로운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개인적 상황들이나 공동체적 배경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tsedeq*는 종종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합당한 행동과 행위를 서술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서술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무질서를 서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tsedeq*와 상응될 때 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도 사용된다.

*tsedeq*의 한 중요한 용례는 구원, 해방, 승리, 구출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행위와 관련되어 특별히 그러하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tsedeq*는 성읍들, 억압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등을 위한 도움으로 나온다. 곤경 가운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은 *tsedeq*로 표현된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 40-55장에서도 그러하다. 스킨리온(*Scullion*)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사야 40-55장에서 *tsedeq*는 항상 야웨의 구원적 행동을 위해 사용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행동의 결과를 위해 사용된다. 이 결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와 조화와 안녕이었다. *tsedeq-tsedaqah*는 이 장들 속에서 번영을 의미한다. 이 결론은 *tsedeq*에 관한 슈미드(H. H. Schmid)의 상세한 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 “제2 이사야에서 *ts-d-q*는 구원사에서 야웨의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 질서는 창조에 바탕을 둔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와 고레스와 ‘중’의 등장을 넘어서서 미래의 구원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질서이다.”

다시 말해서, *tsedeq*의 의미는 법적 그리고 합당한 행동의 영역을 넘어서 구원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로써, 이 의미들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번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 문맥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위의 의미들과 관련된 의미가 “정의”(justice)이다. 많은 문맥에서 *tsedeq*를 “정의(justice)”라는 단어 또는 개념을 통해서 번역될 때 가장 좋은 번역이 된다. 특별히 *tsedeq*가 *mishpat*와 병행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그러하다. 이 히브리 단어 *mishpat* 또한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특히 이것은 판단, 법적 판결, 법적 송사, 정의, 권리(예를 들어, 한 개인의 권리) 등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올 때, 이들은 종종 의로워야 하는 왕의 의무를 표현하고 정의가 공동체 안에 베풀어지도록 해야 하는 왕의 의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예언서들에서 정의(justice)가 왕과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실천되어야만 한다

6) *tsedaqah*의 법정적 의미(*forensic sense*)는 삼하 8:15; 15:4에서도 엿볼 수 있다.

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문맥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tsedeq*의 실천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또한 *tsedeq*의 의미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사야 1장과 같은 문맥들에서 예언자는 박탈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tsedeq*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개역개정』 사 1:21, 23, 26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래의 구체적인 중요 본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공의에 관한 관심은 *tsedeq*와 *mishpat*로 이루어진 중언법(*hendiadys*)의 사용을 통하여 히브리 본문 속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 라이머(Reimer)는 이 사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들은 함께 사회 정의의 이상을 표현한다. 이 이상은 열왕기상 10:9에 나타난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하여 스바의 여왕에 의해 찬양된 것으로써 솔로몬의 통치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tsedeq*를 위한 단 한 개의 유일한 의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 단어를 명백한 단 하나의 의미론적 범주로 환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 단어의 번역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동시에 우리는 *tsedeq*의 이러한 풍부한 다원적 의미의 현실을 수용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여기에서 *tsedeq*와 관련하여 모든 것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단어만을 제안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체적 책임(*communal responsibility*)” 또는 “공동체에 대한 충성”(being faithful to the community)”과 같은 구절(*phrase*)을 제안함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들은 이 단어의 폭넓은 의미들을 포괄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나는 이 표현들

이 모든 문맥들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 소개된 증거 속에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도덕적 개인주의적 의미보다는 좀더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KJV가 *tsedeq*를 집중적으로 *righteousness*로 번역한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tsedeq*는 구약성경에 119번 나온다. 이 119번의 예들 중 KJV는 이것을 82번에 걸쳐 *righteousness*로 번역하였고, *righteous*로 번역한 것이 10번이며, *right*로 번역한 것이 3번이다. 여기에 *tsedaqah*와 어근 *ts-d-q*의 동계(同系) 어휘들을 포함하면, 그 백분율(percentage)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두에서 진술했듯이,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righteousness*의 본래 의미에 관한 질문, KJV 번역의 역사,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한 당시의 이해에 관한 질문을 탐색해야만 한다.

4. 어휘 “righteousness”의 역사와 의미

현대 영어 사전에서 발견되는 “righteousness”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신학적 또는 종교적 문맥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전은 이 단어 “righteousnes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righteousness는 의로운 특질 또는 상태이다; 신적 또는 도덕적 법의 요구에 부합되는 삶 또는 행동을 가리킨다; 특히 신학에서, 예를 들어 신적 존재의 완전성에 적용되며 속죄를 통한 인간의 칭의에 적용된다.” 또다른 사전은 여기에 마음의 정결과 삶의 정직성이라는 의미를 첨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는 삶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righteousness*와 함께 성결과 성결의 원칙의 문제가 언급된다. 또 다른 책은 의로운 상태와 특질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올곧음과 정직성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어의 세 번째 설명에는 의로움과 올바름의 상태(the state of being rightful and just)를 포함한다.

이 단어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우선 첫째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즉, *righteousness*는 어떤 동적인 의미보다는 정태적인 것을 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여러 정의(定義)들이 항상 이 단어를 신적이고 도덕적인 법과 연결하여 서술한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 또는 의롭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성결과 정결과 올곧음과 정직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끝으로 이러한 정의(定義)들은 이 단어에 대한 매우 개인주의적 이해를 보여준다. 이 단어에 대한 이와 같은 동시대의 의미 속에 집합적 요소나 공동체적 강

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반대의 범주로 요약하여 설명한다면 *righteousness*는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묶여 있는 말이며 이것은 세속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공동체적 지향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단어를 흑백논리의 범주로 설명하는 것은 결론을 지나치게 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단어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 범주들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아직 다루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KJV*의 번역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해하였던 방식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또한 이 번역 과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이 단어 *tsedeq*를 어떻게 사용하며 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가장 좋은 번역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약간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저자의 의도”에 관한 성경 해석학적 문제의 또 하나의 예에 직면한다.

우리가 *righteousness*의 의미를 발견하려 시도하는 과정, 그리고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발견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영어가 1604년까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영어 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이전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용어 풀이들, 단어집, 그리고 다수의 2개 국어 사전들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단어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돈하고, 동일한 언어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어떤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단일 국어 사전과 같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나 독일어와 같은 다른 언어들보다 상당히 뒤져 있었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가 그의 가장 탁월한 영문학의 작품들을 썼던 시기에 완전한 사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사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윈체스터(*Winchest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에게 그토록 깊은 영감을 준 언어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단어들은 정의가 가능한 기원이나 철자나 발음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 그 때에 그 단어들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고 정의하고 고착시킨 그 어떤 한 권의 책도 존재하지 않았다 … 영어는 단지 말해졌고 기록되었다 — 그러나 셰익스피어(*Shakespeare*) 시대에 그것은 정의되지 않았고 **고착되지** 않았었다.

어떤 주어진 단어에 대한 체계적 취급의 결여는 그 단어가 쓰여진 당시의 의미를 분별하는 것을 이중으로 어렵게 한다. 랭커셔(*Lancashire*)가 16세기 영어권에

관해 언급하면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당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단지 그 단어의 번역, 어원, 또는 그 단어를 통해 의미하는 것을 가리키는 행동 등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곤 하였다.”

이와 관련된 가능한 도움은 영어의 현대적 재구성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미시건 대학교에 의해서 시도된 한 프로젝트는 소위 **중세 영어 사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사전은 대략 11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사용된 영어 단어들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였다. 이 시기로부터 유래된 영문학의 많은 자료들이 주어진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졌다. 이 사전은 “righteousness”가 *right-wisnesse*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제안한다. 여러 본문들을 바탕으로 한 단어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이러한 현대적 시도에 의하면, *right-wisnesse*는 “justice(정의), fairness(공평), impartiality(공정)”을 의미했다. 이 점과 관련되어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right-wisenes”에서 성경 본문에 사용된 “righteousness”로의 전환이다. 아래에서 논의되겠지만, “righteousness”에 대한 청교도적 이해가 결국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엽의 독자가 그 단어를 내면화한 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17세기에 “righteousness”가 의미했던 것과 그 사용에 관한 정확한 원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탁월한 문학 작품인 KJV에 영향을 준 일련의 동인(動因)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17세기 초기의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1603년까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을 때까지, 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협력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의 한 명백한 상징이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와 모든 관계를 단절한 사실이다. 이것은 영국에 종교 분파들 사이의 완전한 통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제임스 1세 왕(King James I)이 다루어야 했던 가장 급박한 과업 중에 하나는 어떤 번역 성경이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합법화된 소위 “흙정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분열이었다. 그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감독 성서』(Bishop’s Bible, 1568)를 사용하지 않았고, 교회들에 비치되어 있었던 『큰 성서』(Great Bible, 1535)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출판사에 의해서 대량으로 출판되고 있었던 『제네바 성서』(Geneva Bible, 1560)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책을 구매하고 있었다.

옥스퍼드의 코퍼스 크리스티(Corpus Christi) 대학 학장이며, 청교도 그룹의 대변인이었던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 박사의 제안에 따라 제임스 1세는 새로운 번역의 출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것은 두 대학교의 가장 박식한 학자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주교들과 교회의 가장 탁월한 학자들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추밀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왕권에 의해서 인준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오직 이 성경만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은 KJV의 출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도 중의 하나가 한 성경 아래에 모든 백성을 통합하는 오직 하나의 합법적 번역을 가지려고 하였던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든 번역 프로젝트가 보여주듯, 우선 일련의 규칙과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그리고 이에 따라 번역이 수행된다. KJV의 번역자들에게 주어진 번역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감독 성서』(Bishops' Bible)라고 불리는 성경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읽히는 것이었고, 원문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변형시키지 말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2. 오래 사용하여 온 교회의 어휘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church)라고 하는 단어는 “회중”(congregation)으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된 그리스어 단어는 두 가지로 다 번역될 수 있다.)
3. 어떤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고대 교부들에 의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를 택한다.
4. 단도직입적으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단어에 대한 설명인 경우 이외에는 난외주를 달지 않는다.

여기에서 『감독 성서』(Bishops' Bible)의 영향과 함께, 『틴델 성서』, 『매튜 성서』, 『커버데일 성서』, 『큰 성서』와 『제네바 성서』 등과 같은 다른 번역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언어의 번역들 또한 참조되었다. 여기에는 RVR의 기초가 되었던 『벨레라 스페인어 성서』(Valera's Spanish Bible: 1602)이 포함된다.⁷⁾ 『감독 성서』가 KJV의 기초 본문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KJV에 수용된 새로운 표현들은 『제네바 성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tsedeq의 번역과 관련하여 『감독 성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결코 “justice”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KJV 번역자들을 위한 기초 본문이었기 때문에 tsedeq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justice” 또는 다른 유사 표현들은

7) Spanish Valera 1602년판은 Cipriano de Valera에 의해서 1569년 Spanish version을 개정한 것이며, 이 1569년 판은 Casiodoro de Reina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다. Spanish Valera 1602년판은 1862, 1909, 그리고 1960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RVR은 1960년 개정판이다. 현재 Reina-Valera 1995년판이 출판되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제네바 성서』에서는 justice가 몇 차례 사용되었다. 실제 tsedeq를 justice로 번역한 경우가 『제네바 성서』에서는 KJV에서 보다 12번 더 나타난다. 『제네바 성서』가 tsedeq의 폭넓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따라서 내가 볼 때, KJV 번역자들은 『제네바 성서』를 바탕으로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tsedeq의 의미와 관련하여 좀더 발전된 이해를 그들의 번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번역 지침은 명백하였다. 즉 『감독 성서』를 가능한 한 충실히 따라야 했고 가능한 한 그것을 변형시키지 말아야 했다.

다른 많은 요인들이 KJV의 번역 과정에서 융통성의 결여에 영향을 미쳤다.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새로운 번역이 왕에 의해서 명령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번역들이 피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월터 윈크(Walter Wink)는 제임스 왕의 고용으로 일하게 된 번역자들이 어떤 제약을 받았는지에 관한 한 예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 제임스 왕이 새 번역을 주문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네바 성서』에 인쇄되어 있던 난외주에 표현된 “선동적이고… 위험하며, 반역적인” 생각들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난외주에는 폭군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를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윈크는 마태복음 5:38-41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영어 번역이, 그리스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폭력적 저항(nonviolent resistance)에서 유순함(docility)으로 전환되었다. antistenai를 단순히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말라(resist not evil)”로 번역함으로써, 여기에 나타난 메시지는 모든 왕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예수님의 의도였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당히 자주 불의한 정치적 세력들에 대항하는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바람직한 번역은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일 것이다. 윈크는 피동성도 폭력도 아닌 **제3의 길**, 즉 단호하며(assertive) 동시에 비폭력적(nonviolent)인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서, TEV의 번역(“Do not take revenge on someone who wrongs you: 너에게 행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대하여 보복하지 말라”)과 같은 번역은, 단호하며 비폭력적 저항(assertive nonviolent resistance)에 대비하기를 원하였던 왕을 위해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나의 견해로는, 제임스 왕에 의해 고용된 번역자들이 tsedeq와 관련하여 『제네바 성서』에 의해 도입된 가장 최근의 변화들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의(justice)”를 그들의 영적 책임으로 생각하거나 고려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의(justice)”나 “정의로운(just)”, “권리(rights)” 그리고 “공동체적 충성(communal faithfulness)” 등과 같은 강력한 말들은 왕의 각별한 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상태에 관해서 말하는 “공의(righteousness)”와 같은 종교적 단어가 훨씬 더 안전한 단어였던 것이다. 이 단어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shalom*보다는 개인적 상태를 더 강조하는 단어이다. “righteousness”가 왕의 의사와 더 잘 부합되었고 왕의 목적에 더 잘 맞는 단어였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KJV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 세 번째 요인은 청교도적 세계관이었다. 청교도들의 대변자였던 존 레이놀드(John Reynolds) 박사가 새로운 번역 성경을 출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임스 왕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전 교회가 수용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왕을 설득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성결과 정결과 도덕성에 대한 청교도적 관심은 왕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와, 왕궁의 화려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적 자세에 대한 청교도들의 특별한 강조점은 의심할 바 없이 염려의 대상이었다. 수년 후, 1644년에 청교도 사무엘 러더퍼드(Samuel Rutherford)는 그의 유명한 선언문 “법과 왕”(Lex, Rex, or The Law and the Prince)을 출판하였다. 이 논문에서 러더퍼드는 법 위에 군림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권에 공개적으로 도전하였다. 이 문서 전체를 통하여 정의(justice)를 보장하라는 왕을 향한 요구가 여러 차례 걸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청교도적 의도는 왕의 관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 고도로 정치화된 상황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하는가를 확실히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거의 전적으로 종교적 단어인 “righteousness (공의)”가 왕의 의도와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잘 부합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정의, 사회의 악한 구조들의 변혁, 그리고 시민적 책임감과 같은 문제들은 그 당시 왕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아니었다.

비록 결길로 가는 것일 수 있지만, KJV의 최종적 결과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요인은 난외주들을 배제하려는 결정이었다. 이것은 성경 번역의 한 관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단순하며 장식이 없는” 본문이 어떤 경향성과 주관성으로부터 자유롭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며 진실하다는 관념으로 이끌게 되었다. 『제네바 성서』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매우 극단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된 난외주들을 배제하려고 한 시도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실현 불가능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발달시킨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것이다. 난외주들이 *tsedeq*에 대한 다양한 뉘앙스들을 설명하거나 해설할 수 있었던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의 목적에는 평이하고 건조한 용어색인적 번역이 상당히 잘 부합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righteousness”의 의미와 사용은 개인적 경건과 성결과 도덕적 정

결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포적인 의미들이 왕의 의도에 잘 부합되었고 청교도들의 세계관과 신학적 관점들을 잘 지지하는 것이었다.

5. 중요 본문들의 분석

앞에서 지적했듯이, *tsedeq*는 구약성경에 119번 나온다. 이것은 물론 히브리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의 동계(同系) 어휘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내가 다양한 본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tsedaqah*가 157회 사용되었는데, 나의 논지에 이 증거 자료를 포함시킬 경우, 나의 주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연구가 지나치게 방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직 *tsedeq*가 나오는 본문들만을 바탕으로 나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tsedeq*가 나타나는 119번의 용례들 가운데, 나는 이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문학적 장르들로부터 일련의 표본들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신명기적 문학에서 선택한 본문은 신명기 16:20이다. KJ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That which is altogether just shalt thou follow, that thou mayest live, and inherit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개역개정』: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RVR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La justicia, la justicia seguirás, para que vivas y heredes la tierra que Jehová tu Dios te da.*”(Justice, and only justice, you will follow, so that you may live and inherit the land which Jehovah your God gives to you. “정의, 오직 정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다른 영어 번역들이 RVR 번역의 의미를 수용하였다: “Follow justice, and justice alone”(NIV: 정의, 오직 정의만을 따르라); “Justice, and only you shall follow”(RSV: 정의, 오직 정의만을 따르라); “Let true justice prevail”(NLT: 참다운 정의가 승리하게 하라); “Justice, and justice alone”(NEB: 정의, 오직 정의만). 이 특별한 절의 문맥 전체가 공동체적인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그 앞 절은 정의를 왜곡하지 말며, 편파적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며, 뇌물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성경을 읽는 현대 독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따르고 추구한다(following and pursuing justice)”는 것은 단순히 “완전히 의롭다(altogether just)”는 것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정의가 사회 속에서 실천되며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KJV 번역은 이 절의 맨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tsedeq, tsedeq”의 반복이 갖는 강조점을 희석시키고 있다. 물론 KJV는 앞 절(신 16:19)에서 이미 그것을 “Thou shalt not wrest judgement”(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개역개정』 - 역자 주)로 번역함으로써 이 절의 문맥을 설정하였다. 놀랍게도, 『새 스코필드 관주 성서』(New Scofield Reference Bible, 1967)는 그 본문에 “Thou shalt not distort justice”라는 구절을 집어넣고, KJV 번역을 난외에 놓음으로써, 제임스왕역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번역의 기본적인 요구 중의 하나가 말씀에 대한 유사한 반응을 창출하는 것인 바, RVR 번역은 신명기의 본래 독자의 반응에 더 가까운 반응을 창출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적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번역이다. 바로 공동체적 정의를 위한 이러한 관심이 본래의 청중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게 하며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프리 티게이(Jeffrey Tigay)는 이 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앞 절의 명령들은 모두 이에 앞서 토라 안에 이미 진술되었던 내용이다. 특징적으로, 신명기는 정의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첨가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강조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도록 설득하려 시도한다... 정의의 추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며 번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이제 시(詩)의 장르에서, 나는 시편 4:5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특히 이 본문이 4:1과 이 시 전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KJ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Offer the sacrifices of righteousness, and put your trust in the Lord.”(『개역개정』: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RVR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Ofreced sacrificios de justicia, y confiad en Jehová”(Offer sacrifices of justice, and trust in Jehovah: 정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가지 문제를 예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두 번역에서 명백한 것은 동사 “드리다”와 “의뢰하다”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단어들은 제안이 아니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영어 번역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항이다. 명령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그 명령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향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2절의 영어 표현에서 명백하게 드

러나 있다. 그러나 시편의 많은 절들이 문맥에서 따로 떼내어져 교회 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인용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편은 고발되고 박해받는 사람의 상황을 서술한다. 시인은 강한 탄원으로 시를 시작한다. 문맥에서 볼 때, 1절에서 tsedeq를 “정의”(justice)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Hear me when I call, God of my justice.” 나는 5절을 1절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는 크라우스(H. J. Kraus)의 견해에 동의한다. 따라서 “정의의 제사”(sacrifices of justice)가 더 공동체적 문맥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 크라우스는 이와 같이 설명한다:

만약 z-b-h ts-d-q가 ‘lh’ ts-d-q(1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 이것은 명백하다 - 여기에서 다루지고 있는 제사는 야웨께서 정의라고 인정하신 제사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z-b-h ts-d-q는, 박해자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을 야웨가 정의라고 선언한 제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들어가게 하며, 야웨께서 ts-d-q라고 인정하신 것에 부합되는 사회적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성결의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실천에 있다. 확실히 이러한 개인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성결에 대한 관심이 tsedeq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심을 번역하거나 그 의미를 표출시켜 준다면, 그 메시지는 더욱 역동적이며 공동체적 메시지가 표출되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들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KJV는 시편 50:6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And the heavens shall declare his righteousness: for God is judge himself.”(『개역개정』: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자신이 심판장이심이로다”). RVR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Y los cielos declararán su justicia, Porque Dios es el juez.”(And the heavens shall declare his justice, for God is the judge: 하늘이 그의 정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다시 한번 크라우스는 “여기에서 tsedeq는 정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한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라면, 하늘은 마땅히 그의 정의를 선포해야 한다. 그 정의는 확실히 도덕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성결, 옳은 행동, 그리고 “공의(righteousness)”라는 말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즉, 이것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 상호 간에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정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며 요구한다. tsedeq가 요구하는 정의가 없이는 그 어떤 참다운 관계도 발전될 수 없다.

시문학에서의 마지막 예는 적어도 약간만이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마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에서 가장 널리 애송되고 영향력이 큰 시편은 23편일 것이다. 이것은 온 세계의 주일학교에서 외워졌으며, 많은 문맥에 계속해서 인용된다. 이 시는 언어의 장벽들을 초월한다. 서로 다른 종족, 사회 계층, 교육적 배경 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에서 영감을 얻는다. KJV에서 시편 23:3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He restoreth my soul: he leadeth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개역개정』: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이 본문에 대한 RVR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Confortará mi alma; me guiará por sendas de justicia por amor de su nombre.”(He will comfort my soul; He will guide me through paths of justice for the love of his name: 그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정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 시편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아마 justice(정의)가 *tsedeq*의 번역으로써 가장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인이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tsedeq*의 의미론적 가능성에 해당되는 “승리” 혹은 “구원”과 같은 의미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완전히 가능한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의 관점은 어떤 번역 대신 또다른 특별한 번역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보다는, 독자/청자가 “공의로운 길(paths of righteousness)” 대신에 “정의의 길(paths of justice)”로 읽을 때, 상당히 다른 느낌과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이 시가 교회에서 많이 읽히는 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더 언급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히브리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많은 예들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예언서 장르로부터 한 쌍의 예를 언급함으로써 이 단락을 마감하려 한다.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예언자 이사야가 *tsedeq*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는 이 단어를 모두 25번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언자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이 무시되지 않는 의로운 공동체적 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KJV의 이사야 1:21은 다음과 같다: “How is the faithful city become an harlot! it was full of judgement; righteousness lodged in it; but now murderers.”(『개역개정』: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RVR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Cómo te has convertido en ramera, oh ciudad fiel? Llena estuvo de justicia, en ella habitó la equidad; pero ahora, los homicidas.” (How have you become a harlot, oh faithful city? It had been full of justice, equity inhabited it, but now

murderers: 오, 신실하던 성읍아, 네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느냐? 거기에 정의로 충만하였고, 공평이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구나.) 나는 우선 *tsedeq*가 여기에서 *mishpat*(justice [정의], right [공의])와 병행을 이루어 사용된 것과, RVR은 이 사실을 고려하여 *tsedeq*의 번역을 위해 다른 낱앙스를 첨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절을 선택하였다. 둘째, 나는 또한 KJV가 *mishpat*를 judgement(『개역』: 공평 — 역자 주)로 번역함으로써 의미상의 궤도에 서부터 약간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절의 문맥은, 예루살렘이 한 시점에 “judgement”(공평)이 아니라, “justice”(정의)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비교, RSV; NIV; NLT; NEB). 그러므로, *mishpat*를 justice(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함으로, *tsedeq*는 약간 다른 내포적 의미를 갖는다. RVR은 이 단어(*tsedeq*)를 “공평하고 공정한 불편부당(impartiality, equitable and fair)”이라는 의미로 “equity(공평; 스페인어[equidad]; 『개역개정』: 공의 — 역자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즉 이것은 언약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써 정의와 거의 유사한 어휘이다. 브루그만(Brueggemann)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성읍은 과거의 한 때, 신실하였고 정의와 의로움으로 가득했으며 공동체 전체를 향상시키는 언약적 실천으로 충만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제 이 도시는 변덕스럽고, 방종하며, 절조가 없는 창녀와 같은 것으로 비유된다... 모든 사람이 사리만을 추구하고, 아무도 더 이상 공공의 선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기적 자기 추구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사회의 공평한 사람들이 공공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진다. 과부들과 고아들은 정의와 의로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다(비교, 1:17). 이 시험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야웨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큰 신학적 주제들이 과부와 고아를 향한 정책의 구체성으로 요약된다.**

이 단락의 문맥은 개인의 도덕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 보다는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동일한 면모가 이사야 1:26에 대한 서로 다른 번역들을 비교할 때 명백히 나타난다. 예루살렘(Jerusalem)을 “city of righteousness(공의의 성읍)” 또는 “city of justice(RVR: *Ciudad de justicia*: 정의의 성읍)”으로 부를 때, 독자나 청자들이 이해하는 이 말들의 의미도 동일하지 않고, 이에 대한 독자나 청자들의 반응도 동일하지 않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마지막 본문은 이사야 61장이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선언하고 그 예언의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장의 처음 두 절을

인용했다는 사실로 인해 잘 알려진 본문이다. 이 장에서 *tsedeq*는 3절에 나오고, *tsedaqah*는 10절과 11절에 나온다. 나는 이 마지막 본문과 관련하여 나의 논지를 주장하기 위하여 *tsedaqah*의 두 용례를 사용하는 자유를 누리하고자 한다.⁸⁾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 등과 같이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관심이 표출되어 있는 처음 두 절에 이어서, 종/메시아의 말씀과 행동의 결과로 그의 백성들이 “공의의 나무들(*trees of righteousness: KJV*)” 또는 “정의의 나무들(*trees of justice: RVR*)”이라고 불린다는 내용이 나온다. 처음 두 절의 주제를 바탕으로, 나는 다음 사실을 강력히 주장한다. 즉 이 본문의 문맥에서, *tsedeq*는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는 정의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만일 이 의미가 3절을 위해 수용된다면, 시온은 메시아에 의해 제공된 정의를 체험한 후, 이제 그 자신이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clothed with a robe of justice(정의의 옷을 입다)”, “wrapped in a mantle of justice(*tsedaqah*: 정의의 길 옷을 입다)”. 이 해석은 10절의 화자(話者)를 시온 자신으로 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⁹⁾ 11절은 세상의 모든 나라 앞에서 정의(*justice: tsedaqah*)와 찬송(*praise*)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마이클 크로스비(Michael H. Crosby)는 팔복의 네 번째 복(“의[*justice*]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개역개정』)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 세워진 자들로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기 위하여”(사 61:11) 우리를 사용하신다… 정의는 하나님의 권위이며, 이것은 세상에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장 계급의 불의로 고통 받은 공동체(23:1-4), 야웨를 “우리의 정의”(렘 23:6; 33:16; 비교, 사 11:1-11)로 체험한 공동체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정의는 세상에 드러난다. 이와 같은 체험된 정의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와 유사한 정의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체험과 사역이 우리 영성의 원형이므로, **세상이 우리의 정의의 사역을 볼 때, 세상은 또한 우리를 “우리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정의의 사역을 체험하게 되어야 한다면, *tsedeq*의 주

8) 원필드(M. Weinfeld)는 히브리어 단어 쌍인 *mishpat/tsedaqah* 와 아카드어 단어 쌍인 *kittum u misharum*과의 병행 관계를 지적하였다. 이 아카드어 단어 쌍과 히브리어 단어 쌍은 모두 “정의의 의미”(a sense of justice)를 나타내고 있다.

9) 10절에서 누가 화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시온을 화자로 보는 주장이 종/메시아로 보는 견해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된 의미는 성경의 영어 번역 속에 표출되어야만 한다. “righteousness”(공의)로 표출되는, 사람의 “종교적”, “도덕적 상태”만으로는 “정의를 행하도록”(do justice) 교회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6. 예비적 제안들

나는 모든 번역이 해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고자 한다.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문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을 내포한다. 이것은 번역어의 선택이 “신학화”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앞에서 제시된 증거들이 교회에서 행해진(또는 행해지지 않은) 신학화의 방법과, 교회에서 제자직을 통하여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제안한다. 개신교 전체, 특히 서구 사회에서의 개신교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제자화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적 성결, 정결, 도덕적 율공음과 정직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실제 세계”에서 이탈하여, 영성이 주로 개인의 의로운 상태에 의해서 평가되는 “안전지대”로 숨어버리는 개인주의적 신학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오래 전 저명한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이 현상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종교가 사회 생활에서 점점 더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본래 종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느리지만 확실히,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과학적 세계는 그들 자신을 종교적 기능들로부터 분리시켰다. 뒤르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인간 관계 속에 함께 계셨으나, 이제 점진적으로 거기에서 떠나 세상을 인간과 그들의 갈등 속에 남겨두신다.

이로 인하여 결국 종교는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으로 환원되게 되었다. 성서적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공공의 영역에서 떠나 사적인 표현으로 환원되고 한정되었다.

나의 첫 번째 핵심 제안은 교회가 만일 성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신앙을 “탈-개인화”(de-privatize)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tsedeq*에 대한 전통적 영어 번역들이 *tsedeq*가 갖고 있는 미묘한 의미를 회

복하는 것, 즉 *tsedeq*와 그 동계 어휘들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justice)”라고 하는 성경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행해진다면, 두 개의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선 첫째로, 나의 개인적 공의가 주요 관심사인 개인의 수동적 상태로부터, 언약적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적극적인 공동체적 관심으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민족주의적 영성, 곧 정적인 영성보다는 역동적이며 초월적이고 이타적인 관심이 강조될 것이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삶의 세속적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도피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세상의 “현대적 필요”로부터 도피하는 대신, 새로운 번역은 교회로 하여금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둘째로, 좀더 공동체적이고 수평적 사역 모델과 지도력이 나타날 수 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역의 패러다임은 매우 계급주의적 지도력의 신학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회의 상업주의적이고 자기애적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과 자기 과시와 성공을 위한 욕망을 부추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인간 본성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한 갈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충실한 정의를 위한 갈망”에 바탕을 둔 구속적 삶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두 번째이며 마지막 핵심적 제안은 “세상의 필요는 *tsedeq*와 그 동계 어휘들 속에 표현되어 있는 정의의 공동체적 면모를 이해하는 교회에 의해서 훨씬 더 충실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특별히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번역에서의 단순한 변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justice(정의)”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가 그 메시지를 얻게 될 것이며, 오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성서적 명령을 진지하게 취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필요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다. 굶주림, 억압, 빈곤층의 증가, 불의,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들, 자연 재해, 폭력 등과 같은 현실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한다. 종종 이 현실에 대한 “의로운”(righteous)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무관심으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개인화된 영성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참다운 자각 없이 개인적 의로움과 안녕에 집중한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인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tsedeq*를 통하여 공동체적 실천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수용한다면, 참다운 소망이 세상을 향해 선포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필요”의 두 예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정의를 행하라는 명령을 수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침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여러 개의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의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복음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남미에서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강요하였다. 이 체제 또는 세계관은 그 어떤 정부의 개입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이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맹렬하고 사나운 경쟁에 대한 아무런 통제도 없는 “야만적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체제로 이끈다. 울리히 듀크로(Ulrich Duchrow)는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의 극단적 형태를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금융자산의 축적은 이제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결정들을 위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기준이다. 이것은 더이상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메카니즘(a concrete mechanism)이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안에 강요된 이 “구체적 메카니즘”의 결과는 세상의 불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비인간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의 축적이 우선적 관심이 되면서, 그 이외의 모든 관심들은 급속하게 쇠퇴해버린다. 이 “지구촌”의 상황은 *tsedeq*를 갈구한다. 이 현실은 교회로 하여금 *tsedeq*가 요구하는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인 명령을 진지하게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실을 위한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도전한다. 정의의 완전한 부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이 공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tsedeq*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채워질 수 있다.

정치적, 군사적 억압 또한 교회의 관심사여야 한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 주의 포트 베닝에 있는 “아메리카 군사 학교(The US Army School of the Americas)”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곳은 남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곳인데, 여기에서 전투와 반군 토벌과 마약범 소탕 훈련을 받는다. 이 학교의 아모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90%가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악명 높은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남미에서의 가장 악한 인권유린 사건들의 책임자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의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한 일들을 개인적으로 목격한 사람이다.¹⁰⁾ 아르헨티나 독재자 레오폴도 갈 티에리(Leopoldo Galtieri)와 로베르토 비올라(Roberto Viola) 두 사람 모두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들은 30,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죽이고 행방불명이 되도록 한 책임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중앙아메리카의 잔인한 폭력적 사건들의 책임자들도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다.¹¹⁾

이 학교를 폐쇄시키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약 교회가 “정의(justice)”의 겉옷을 입고 있었다면, 교회는 억압받는 사람들과 불의의 희생자들을 위해 그의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만약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체성을 잃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참으로 도우려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righteous beings)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수행자들(agents of justice)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 좋은 출발점은 교회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좀더 균형 잡힌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다.¹²⁾

하시드의 이야기로 이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어느 날 랍비 한 사람이 그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 어느

10) 이 잔학상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다음 자료를 참고: *Nunca Más, Informe de la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Buenos Aires: EUDEBA, 1984).

11)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참고: <http://www.soaw.org/>. Accessed February 2, 2000. 이 학교를 존속 시켜야 하는가 폐쇄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참고: <http://www.mastiffassociation.org/news/mexic/apa11.htm>. Accessed February 3, 2000. 공정성을 기하여 말하건대, 군대 장관인 루이스 칼데라(Louis Caldera)가 학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려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칼데라의 입장은 이 학교의 존속이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 학교가 마약 밀매를 막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루이스 칼데라와 미국의 조셉 매클레이(Josheph Moakley) 사이의 논쟁, 참조: http://www.pbs.org/newshour/bb/mil.../july-dec99/sotamericas_9-21a.html.

12)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dikaios, dikaiosyne*의 번역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다. See the excellent analysis offered by C.H.Dodd, “Some Problems of New Testament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13 (July 1962), 157;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Orbis Books, 1991), 70-73; 400-408 ff.; Michael H. Crosby, *Spirituality of the Beatitudes* (Maryknoll: Orbis Books, 1982), 118-139; Elsa Tamez, *The Amnesty of Grace: Justification by Faith from a Latin American Perspective*, translated by Sharon Ring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비록 이 문제가 인식되고 주의 깊은 연구가 행해지긴 하였지만, 신약성서의 현대 영어 번역들은 “전통”에 대항하기를 망설이고 있으며, 대부분 이 문제의 그리스어를 “righteousness/justification”으로 번역한다.

시점부터 빛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염소와 당나귀를 구별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랍비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다른 학생이 말하였다: 저는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랍비는 다시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의 학생들이 재촉하여 묻자, 랍비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이며, 너희 형제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이다. 그 때 비로소 너희가 빛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어둠이다.

<주요어>

정의, 공의, 번역, KJV, RVR, 이데올로기, 성서 번역의 역사

<Abstract>

**Justice vs. Righteousness:
A contextualized analysis of “*tsedeq*” in the KJV(English)
and the RVR(Spanish)**

Dr. Steven Voth
(United Bible Societies America Area Translation Consultant)

This study examines a particular translation problem and how translations determine the theologizing of the Church. The point of departure is a comparison between the King James Version and the Reina Valera Revisada (Spanish Version). The problem addressed is multifaceted including: two modern languages, Spanish and English, the understanding of a specific Hebrew term (*tsedeq*) as it appears in a variety of contexts, and the consequences of translation choices for the theology embraced by the Christian Church.

A preliminary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word justice appears only 28 times in the entire KJV, whereas the word *justicia* (justice) appears 370 times in the RVR. This difference led to an a contextualized analysis of the Hebrew term *tsedeq* because the KJV consistently translates this term with the word “righteousness” however the RVR consistently translates *tsedeq* with the word *justicia* (justice). In addition the paper addresses possible political, religious and social factors that may have influenced the choice of the term “righteousness” on the part of the translating team of the KJV. It also seeks to gain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term “righteousness” as it was used in the early 17th century. Finally, a proposal to nuance the translation of *tsedeq* is offered based on contextual factors. This then would influence the theologizing of the Christian Church as well.